“이 3가지는 필수” 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소감문

기계학습 프로그래밍(화, 14:00 ~ 18:00)

202235253 박민규

영상을 보고 제가 입학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챗GPT가 처음 나오고 필요한 코드를 제공해주고 바이브 코딩이 등장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 사용하기, 바이브 코딩해보기, 자신의 이야기로 5분 단편 영화 만들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AI를 이용해 저는 올해 4월 정도에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제가 4월에 복학을 준비하기 위해 Cursor AI를 이용하여 Python, Flask, React.js, MySQL을 연동하여 캘린더 웹 프로젝트를 구성해보았었는데, Cursor agent AI가 코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직접 구성해주며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코드를 검토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예전에는 코드 작성, 프로젝트 관리, 검토를 모두 했었지만, 현재 AI가 코드 작성, 프로젝트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주고 사람은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AI에게 반영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에서 김대식 교수님이 AI 기술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이 활동을 통해 Python 백엔드와 React.js 프론트엔드의 API 설계, MySQL 스키마 설계 등의 지식이 많이 늘었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방법, 즉 프롬프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나온 5분짜리 단편 영화 만들기는 꽤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미래에 취업을 위해 준비하게될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야기에 대해 잘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단편 영화 만들기는 AI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해줄 것입니다.